

“새 병원 건축 도와줄 후원자 찾습니다”



강진경 연세대 의료원장은 “세브란스의 기부로 병원이 지어진 지 100년만에 이제는 우리 손으로 국민의 병원을 짓겠다”고 말했다.

강진경 연세대 의료원장

강진경(康珍敬) 연세대 의료원장은 요즘 신촌세브란스병원 사무실의 유리창 너머 4,000명의 광활한 공사현장을 지켜보는 게 일이다. 자칭 ‘현장감독’이다. ‘백의(白衣)의 현장감독’은 2004년 완공될 세브란스 새 병원(1,004병상)을 지켜보며 또 한 명의 ‘세브란스’를 찾느라 분주하다. 미국인 사업가 루이스 세브란스의 기부로 세브란스병원이 지어진 지 꼭 100년만에 “세브란스 새 병원은 우리 손으로 짓겠다”며 500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인 이들은 물론 동문 동창입니다. 지난해 의대 동창회 행사 때 하루 저녁에 10억원이 걸렸습니다. 병원과 학교 직원들도

이나 마찬가지로 국민병원 아니겠습니까? 한번은 어떤 기부자로부터 1억원이 입금됐다. 강 원장이 수소문해

1,004병상 지상21층 규모 2004년 완공 건축비 2,400억... 500억모금 목표 수술받은 환자 익명 1억원 기부도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욱 고마운 것은 환자들입니다. 치료를 받고 너무 감사하다며 어떤 사람은 10만원, 어떤 사람은 수천만원을 냅니다. ‘공사중이라 시끄러워서 죄송하지만 2년만 기다리면 더 좋은 시설에서 진료해 드리겠다’고 말하는 우리 의료진들은 모금요원

원장실로 초대, 차를 대접했다. 알고보니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은 있는 개인 사업가였다. 이렇게 1995년부터 지금까지 모인 돈이 벌써 200억원. 2,400억원의 건축비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단과대학이 주체가 된 모금액으로 놀라운 성과다. ARS, 지로용지발

급 등 모금방법도 갖가지이고 기부액에 따라 플래티늄, 골드, 실버 등 VIP진료카드를 발급하고 진료비 감면, 건강진단권 증정, 회의실이나 수술실에 후원자명 부여 등 예우방안도 다양하다.

지상 21층, 지하 3층, 연면적 4만 9,000여평 규모로 지어지는 세브란스 새 병원은 소화기병센터, 뇌신경센터, 신장병센터, 응급진료센터 등 전문센터와 최첨단 진료기기를 갖춘 첨단병동으로 태어난다. 강 원장은 “환자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인력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대학으로선 임상연구와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데 40년된 낡은 시설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고 배경을 말한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투자한 병원들과 경쟁하려면 새 병원이 절실했다”는 솔직한 심정도 털어놓았다.

시설에 걸맞은 의료인력이 문제다. 강 원장은 “내년에 의사 40명을 새로 뽑고, 외국 연수를 통해 선진 의료기술을 흡수하는 등 의료진의 수준을 높이는 인력수급계획을 세워놓았다”고 말한다. 그는 “앞으로 맹장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은 중소병원이 담당하고, 대학병원에서는 3차 진료기관의 개념을 넘어 고난도의 진료 및 수술만을 담당하는 4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희원기자 hee@hk.co.kr

의사칼럼



박유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교수

최근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관련 제품 시장은 여전히 호황이다. 날씬함을 미의 기준으로 삼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은 줄지 않을 것이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또 다른 피해로 ‘거식증(拒食症)’이 있다. 10~20대 젊은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병이다. 처음엔 살을 빼겠다고 식량을 줄이지만 저체중 상태가 돼도

복하게 되어 10kg 정도의 체중 변동이 수시로 일어난다. 대식증은 젊은 여성의 2~10%에서 나타난다.

TV나 잡지에 등장하는 모델들의 늘씬한 몸매를 추구하는 욕구가 지나치면 이러한 마음의 병을 일으킬 수 있다. 환자들은 대개 자신감이 부족하고 완벽주의적이며 경직된 사고를 가진 경우다. 특히 한창 성장해

‘식사장애’ 조기발견이 중요

식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영양학적으로 심각한 이상을 초래해 무월경, 어지럼증, 저혈압, 빈혈, 부정맥 등이 나타나며 이중 약 10%가 목숨을 잃는다. 거식증은 선진국병이다. 미국의 한 보고에 의하면 여고생의 약 1~2%가 거식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다이어트를 시도해보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지는 ‘대식증’도 있다. 배가 너무 불러서 아프거나 누군가 말려야 식사가 끝난다. 그 다음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오면서 굶거나, 스스로 구토를 하거나, 설사약, 이뇨제를 먹거나, 지나칠 정도로 운동을 하는 부적절한 보상행동이 뒤따른다. 자신의 의지로 먹는 행동을 그만둘 수는 없지만 아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폭식과 거식을 반

야 할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데에 이 병의 심각성이 있다. 이 시기엔 성장 속도가 개인마다 다를 뿐 아니라 균형 있게 성장하지도 않으므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체격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여자는 지방 조직의 증가가 두드러져 체중이 많이 늘어난다.

식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선 ‘고위험군’을 일찍 찾아내야 한다. 몸무게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도적으로 자주 식사를 거르는 청소년들을 찾아내 상담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 전문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운동으로 만들어진 탄력 있는 아름다움이 미인의 기준이 되는 사회 의식의 변화도 이 병을 예방하는 데 한 몫 하리라 본다.

경희의료원·분당 메디파크 등 5개병원

모유 수유 ‘아기에 친근한 병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기에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는 8월 1~7일 제11회 세계모유수유주간을 맞아 분당 메디파크 산부인과, 광주 엔젤 산부인과, 경희의료원, 일신조산원, 부산보훈병원 등 5개 병원을 ‘2002년 아기에 친근한 병원’으로 선정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기에 태어난 후 30분 이내 엄마 젖을 물린다 △엄마 젖의 장점을 임산부에게 교육시킨다 △아기에 엄마 젖 이외에 다른 음식물을 주지 않는다 등 10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했다.

엄마 젖이 의학적으로 분유에 비해 크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유 수유율은 지난해 16.3%로 세계 최저 수준.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의 분유 수유율은 50~70%이다. 대전산병원 박철홍 부장은 “모유는 아기에 필요한 단백질, 지방, 당분, 비타민, 미네랄 효소 등을 이상적으로 함유하고 있어 아기의 두뇌 개발 및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식품”이라고 말했다. / 권대익기자 dkwon@hk.co.kr

건강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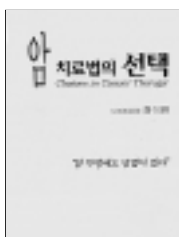
무료 온라인 화상채팅 상담

오렌지 성형외과 치료는 홈페이지(www.orangeclinic.co.kr)에 무료 온라인 화상 채팅 상담을 개설했다(사진). 의사가 웹 카메라를 이용,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환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 가상 수술을 실시해 준다. 홈페이지를 통해 화-목요일 중 시간을 예약하면 성형외과 전문의와 치료 전문의 3명이 상담한다. (02)546-0042

내과전문의 암치료법 출간



사)를 펴냈다. 암의 예방법,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한 예측, 암환자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식이요법 등을 소개한다. (02)478-0035

불임치료제 임상대상모집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불임클리닉은 불임치료제 오가루트란의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필요로 하는 불임 환자로 만 23세~39세, 몸무게 50~70kg, 규칙적인 생리주기를 지닌 건강한 여성이면 된다. (02)760-2667

위궤양 효과 ‘고을빛생식’

고을빛생식마(췌)는 위궤양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을 억제하는 유산균발효추출물이 포함된 ‘고을빛생식’을 개발, 시판한다. 첨가된 유산균발효추출물은 ㈜셀바이오텍이 지난해 개발한 물질로 올 2월 미 식품의약품(FDA)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 식품첨가물로 인가받아 세이프라이라는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다. 2개월분 19만8,000원. (080)544-5544

혈당 저하 ‘바나나차’ 시판

당뇨병환자의 높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바나나차’가 보전식품에서 나왔다. 바나나에 함유된 플로솔린산이 혈당을 낮춘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3년 전 사이언스에 발표된 적이 있다. 60포 5만8,000원. www.bojeon.com (080)500-0002

● 무료건강강좌 일정

병원 및 단체	일시	장소	내용	연락처
세브란스병원	31일 오전11시30분	외래2층	우울증	(02)361-6100
	3일 오후2시	종합관	임산부교실	(02)361-6700
영동세브란스병원	30-1일 오전11시	본관3층	산모교실	(02)3497-2031
	1일 오전10시	본관3층	유방건강	(02)3497-2031
	30일 오전10시30분	본관5층	당뇨병	(02)3497-2839
서울백병원	31일 오후2시	본관5층	당뇨병	(02)3497-2839
	23일 오후1시	P동 605호	임산부 영양관리	(02)2270-0219
	31일 오후2시	P동 605호	당뇨교실	(02)2270-0302
상계백병원	2일 오전11시	P동 9층	관절염	(02)2270-0004
	30일 오후2시	지하층 회의실	당뇨교실	(02)950-1001
	2일 오후2시	지하층 회의실	요통	(02)950-1145
일신백병원	31일 낮12시	3층 산모교육장	산모교실	(02)950-1058
	1일 오후2시	지하3층	당뇨교실	(031)910-7223
강남치병원	2일 낮12시	3층 의사회의실	유방암	(02)3468-3116
분당치병원	2일 낮12시	지하2층	임신부 질병	(031)780-5312
한강성심병원	1일 오후1시	노인센터10층	화상치료	(02)2639-5770
강남성심병원	29일 오후2시	노인센터10층	당뇨병	(02)2639-5770
	30일 오후2시	2층 내과 외래	암 예방	(02)829-5089
강동성심병원	30일 오후1시	제3관 3층	당뇨병	(02)829-5089
	30일 오후1시30분	5층 집단체료실	당뇨병	(02)2224-2147
강동성심병원	1일 오후1시30분	5층 집단체료실	뇌졸중	(02)2224-2147